

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시편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상 고 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6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6월 19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전(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④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⑤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⑥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⑦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⑨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⑩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원한 인치심으로 영혼은 자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은 성령을 거부하게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2009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 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을 박해와 조롱, 학대 등으로 궤방하지만,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강건하고 능률하게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2절).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 그리고 죽음까지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사 53:3).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4절).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십자가를 참으사...”(히 12:1~2).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시 129: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현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탐욕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절규는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께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심령 깊은 데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바라보며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속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 그러기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뎌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전심으로 절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가난이란 갈급함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갈급함 없이 그저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시 130:8)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를 전하는 정결한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라는 질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피조물인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알 수 없는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 심령을 주님 품에 맡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1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피조물의 관계로써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절의 말씀은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한지를 고백합니다(요 14:27). 자신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삶과 다른 이의 삶을 주관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몇 텐 아이같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갑시다. 이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품에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시 131:3)

기도 제목 ① 지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6월 19일에 있을 제2차 청지기훈련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
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언약궤에 얹힌 역사를 회상하며 사실에 기초한 순종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5~8절). 실제로 언약궤가 기랴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즐거이 노래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삼하 6:14~15).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순종의 결과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자신들도 주님께 순종할 때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10~12절). 더 나아가 후반부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13~18절). 결국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죄인들이 행하였던 불순종의 죄악들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을 향한 참된 순종들을 계속해서 본받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과거에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타나고 있고 다시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께서 오실 그날에 대해 믿는 자로서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펼쳐질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계 4:10~11).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꿀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시 132:17)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에 한마음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들과 함께 시역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행 2:1)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히 10:25)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2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도록 세움 받은 존재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낙담될 때 주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위로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사이에 보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흥 그리고 기쁨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도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로 시작된 발걸음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발걸음으로 옮겨집니다.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1절).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 나아가 성령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3절).

참된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함을 받은 것만으로도 주님을 송축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할 때 천국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기쁨이요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걸음마다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즐거워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표정과 행동과 말에서 전혀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면, 그리고 항상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34: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찬양의 이유를 서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3절). 그리고 계속해서 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6~7절). 둘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8~14절). 셋째로,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으로서 사람들의 수공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15~18).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15~18절). 인생을 허탄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시 135: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여름 계절학교 교사강습회를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시인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창조 사역(5~9절)과, 역사의 섭리(10~20)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21~24)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시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고전 5:7).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인자하심 앞에 시편의 찬양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1~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1)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브라데 강변에서 지난 날의 기쁨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길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1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2).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리 후회해도 자신이 저 지른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마 25:30).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할 찬양을 오히려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오락거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3절).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복음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 할 때, 주님의 사역은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일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루살렘을 늘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5~6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주님께서 이루실 주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늘 우리 마음에 가득 넘쳐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죄악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은가를 늘 살피며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시 137:1)

기도 제목 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듯 우리도 우리의 본향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2절). 아멘! 주님은 자신의 성품 중의 하나인 인자와 성실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5절).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7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8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고후 1:20~22).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참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시 138:5)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모나 일가친척 친구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1~3절). 내가 새벽 햇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고 해도 주님의 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행사와 지으심은 너무나 기이하여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6, 14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보배롭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15~18절).

은총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23~24절).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24절).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형편과 행위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시 139:1)

기도 제목 ① 영원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마 6:13). 다윗 역시 본문에서 악인으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육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디에 울무가 있으며 어디에 그물과 함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내게 해가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해하려는 계락을 가지고 우리를 에워싸며 덤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단과의 싸움을 '전쟁의 날' 이라고 표현합니다(7절).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6절). 시인은 하나님께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필요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만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리우시는 분이시며(7절),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며(8절),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12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에서 건져주시며 또한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13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시 140:1)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동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지금 우리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거룩한 심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2절).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므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움직이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3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악을 행하며 그러한 자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고후 6:14).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 관계가 지금은 우리에게 좋게 여겨져도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5절).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책망하는 소리를 걸림돌로 여겨 주님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악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요 6:61).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엎드릴 때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9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반궁한 대로 버려 두지 마옵소서”(시 14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제2차 청지기훈련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은 동굴 속에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위축되고 절망될 때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3절).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위축되어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2절).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3절).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의 고통을 아는 자도 없고 실만한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4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내 영혼을 돌아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내 삶의 전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5절).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7절).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롬 6:14).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시 142:1)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새가족들이 거듭나서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2절).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령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침담할 뿐입니다(4절).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6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친히 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11절).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8절). 주님께서서는 그의 품으로 숨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9절).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12절).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의 상함과 참담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며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4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 143:2)

기도 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은 변지보다 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3절). 더 나아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만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새 노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로써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가득 넘쳐야 할 것입니다(계 5:9~10).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계 5:13). 오직 주님만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새 노래가 오직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시 144:9)

기도 제목 ①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들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한결같기를 원합니다(2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가 주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벽과 낮과 밤 심지어 꿈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7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2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은 결코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그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참 마음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임을 깨달아 그들 또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3절). 다윗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향한 송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모든 세대의 입술에서 울려 퍼짐으로써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대를 초월한 영원한 나라이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13절).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시 145: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1~2절). 잠깐에 불과한 우리의 생을 허무한 것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어린양을 찬양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이 나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한 있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험없는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3~4절). 오직 우리의 소망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한 신실함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5~6절).

압박당하는 자와 주린 자 그리고 갇힌 자가 해방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시편기자는 찬양합니다(6~9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기자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a)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해방시키시고 죄 때문에 억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매순간 주님을 찬양하녀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46:1)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훈련에 출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받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B.C. 586~538년)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후에 익명의 시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느 12:27~43).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국가 재건이 완성된 이후 이스라엘은 군사·사회·경제적으로 안정과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세 연으로 나뉘는데 각 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찬양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중반부 7~11절은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후반부 12~20절은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각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능력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예시합니다(계 11:15~18).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시 147:1)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침지기훈련 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은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감사예배의 시입니다. 이 시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천상 세계로부터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마치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전체 분위기가 힘차고 박진감 넘치게 합니다.

1~6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7~10절에서는 지상 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1~13절에서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축복된 자세는 바로 일치된 찬양의 모습뿐입니다. 더욱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는 인간들이야말로 더 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엡 1:12; 2:8~9).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와 복음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시 148:5)

기도 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 시는 인류의 창조주이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과거에 많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찬양을 촉구하는 감사예배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생 구원의 하나님과 그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특히 이 시에 나타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묘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반부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창조자요 왕이시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5~9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에 따른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 의로운 백성이 얻게 될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찬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 43:21). 그리고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되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곧 찬송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신앙고백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되신 예수께 찬송을 드리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이다”(시 149:1)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맺는 다섯 시편들 중에 가장 마지막 시편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시편의 결론답게 시편의 중심 주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나타나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에 대한 권면은 여섯 절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짧은 시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무려 13차례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짧은 한 편의 시 안에서 이렇게도 많이 찬양하라 가 나타나는 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어 중반부 3~5절에서는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 줍니다. 끝으로 후반부 6절에서는 찬양의 주체와 그 자세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끊임없이 찬양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진정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 끊임없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바라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오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인생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실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안부와 축복으로 머리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1~7절). 그는 로마 교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만간 그 곳에 찾아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8~15절). 로마서의 본문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로마서의 주제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 16~17).

16~17절은 복음 중의 복음, 또다: 복음으로 성경 진리를 핵심적으로 간추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득의’의 주제는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해 바울이 주장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선행이나 외적 표식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도덕이나 선행과 같은 인간의 짓을 덧붙여 구원의 요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할례나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반부인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결정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첫째, 진리대로(2절) 사실의 경우와 일치하게 판단하며 둘째, 행한 대로 판단하며(6~11절) 셋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입각하여 판단하십니다(12~15절). 바울이 이처럼 자세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까닭은 유대인들의 죄를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특권의식에 집착했을 뿐, 진리(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실을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17~24절).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참 유대인(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곧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할례는 비로소 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성령에 의해 마음에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참 유대인이요 참 할례자인 것입니다. 은연 중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회에 다닌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신앙 외의 조건으로 만족하며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 그리스도인들로 자신이 부인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롬 2:29)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로마서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 가운데 하나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진리를 언급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10~12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합니다.

바울은 21~31절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21~24절).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기도 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율법)가 아닌 순종(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칭의는 구속 언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요컨대 칭의의 관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23~25절).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며 구원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칭의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알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5~8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러한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로 4:8)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룩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10절). 다음으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칭의의 결과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12~21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12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인류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17절). 죄 가운데 빠진 인류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진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칭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찬양위원회와 9개 찬양대, 2개 연주대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결과를 설명했다면 이 장은 의롭다고 인정된 자, 곧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에 종 노릇 하였으며(6절), 법(율법)에 얽매어 영적 사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한이니”(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자신을 부인하는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16절). 죄의 종에서 벗어나 순종의 종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요구하고 죄를 억제하고 정죄하며, 그리스도께 가도록 길을 지시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어기는 자를 의롭다 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죄에서 해방시키는 은혜 아래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4절).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실 줄을 믿노니”(롬 6:8)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과 감사로 가득한 제3차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율법은 마치 남편과 같아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내를 주장하듯 율법은 과거에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의 주권에서 벗어나듯, 이제 신자도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4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18~19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바울은 그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24절).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해결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25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은총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께서 복음만을 전하는 나팔로 사용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1~2절). 그리고 이어서 성화의 삶의 본질을 규명하고 (12~17절),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합니다(18~30절).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31~39절).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9절).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13~14절).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벨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6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 졌기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거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도전 하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무시하고 적당히 믿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 없는 말에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 합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605	고린도전서 6:19~20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0612	로마서 8:1~11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0619	시편 46:1~3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0626	누가복음 12:15~21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너희 몸은

| 초점 |

성령의 전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 찬송 |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 본문 | 고린도전서 6:19~20

¹⁹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²⁰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씻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 나의 몸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히 10:2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 고전 12:12~31 말씀을 읽고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 날,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의 몸에 일어납니다!

고전 6:19 _____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의 몸은 전통과 지성, 인본주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세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고후 5:16~18 /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_____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_____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_____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 성령의 전으로 나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달으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은 그의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이어야 합니다!

갈 5:17~18 / 육체의 은 성령을 거스르고 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의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살고 성령에 의해 견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 도전적이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갈 3:5 _____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믿음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뿐입니다.

요 14:26 _____

※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온전히 성령의 것이 되어 믿음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닌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의 목적은 그분의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 다음 말씀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설명해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20)

①

②

→ ① '값으로 산 것'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 ②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 스테반이 이 세상을 떠날 때(행 7:55~60)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매를 맞고 돌에 맞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내 삶의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갈 6:17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몸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요일 3:24

딤후 1:1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성령을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원한 인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2.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과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

| 초점 |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 찬송 |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본문 | 로마서 8:1~1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성령은 항상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신자들은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영적 전쟁에 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롬 3:10~12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은 놀라운 것들을 보증해 주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보증해 줍니다.

롬 8:1 _____

※ 바울이 내면에서 겪었던 영적 싸움(롬 7:24~25)과 나의 영적 싸움을 비교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절한 자들은 계속 정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요 3:17~19 _____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더 이상 율법에 의해 구속받지 않음을 보증해 줍니다.

롬 8:2~4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_____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_____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_____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 로마서 5:1~2, 마태복음 23:13~15, 갈라디아서 2:16 말씀을 읽고 '율법과 은총'을 주제로 묵상한 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갈 3:24 /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으로 말미암아 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증해 줍니다.

롬 8:10~11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그리스도의 은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 없음'입니다.

롬 8:35~39 / _____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
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_____ 우
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_____ 하
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 보
증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은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총은 진실로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은총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을 2:12 _____

마 16:24 _____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는 입술과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두려워하지 말라

| 초 점 |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본 문 | 시편 46:1~3

㉞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㉟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
운데에 빠지든지 ㊱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
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다(셀라)

우리는 지금 매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 환경 재해, 정치적 혼돈, 사회적인 병폐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고 나누어 보십시오.

베후 33

사탄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최근에 사탄의 시험이라고 느낀 일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입증된 것이며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 46:1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 23:1

사 40:29~31

주님은 모든 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시 46:2~3 / 그러므로 땅이 _____ 산이 _____ 바다 가운데
에 _____ 바닷물이 _____ 뛰놀든지 그것이 _____ 산이 흔
들릴지라도 _____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십자가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롬 5:1 _____

※ 막 4:39에서 바다를 건너려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의 삶에 풍랑을 만났을 때와 그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나누어 보십시오.

- 내 삶의 풍랑 _____
- 주님의 음성 _____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참 신자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 요한복음 14:1~3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 46:10 / 너희는 _____ 내가 _____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
도다

※ 현재 내가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일은 어떤 것입
니까? 실제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은 모두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롬 8:28 _____

롬 8:14~15 _____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 요한복음 1:12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명료하게 확증해 줍니다. 사랑의 주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요 7:38 _____

요 16:33 _____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약속 안에서 변치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루를 마치십시오. 세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과 어리석은 자여!

| 초 점 |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 본 문 | 누가복음 12:15~21

⁽¹⁵⁾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¹⁶⁾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¹⁷⁾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¹⁸⁾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세상은 고등 교육을 받고, 부유하며 세련된 문화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다 성품까지 좋은 사람들을 감탄과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 성공과 축복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성경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계 1:3 _____

계 19:9 _____

※ 누가복음 12:13~21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외적 성공이나 업적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관심있게 보시는 것은 바로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당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세상의 성공은 허무하다

어리석은 사람의 성공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눅 12:16~18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 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실로 중요한 그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눅 12:15 / 삼가 모든 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의 넉넉 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욕망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의 보화는 하나님이 아닌 그의 수입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 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의 소유 물은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대신 이 땅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눅 16:13

세상의 것에는 영원한 평안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안도감은 잘못된 것입니다.

눅 12:19 /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_____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고상하게 쉬어도 좋을 만큼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한껏 여유로운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일 2:15~17 _____

※ 현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세상적인 풍부함이 평안을 보장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안전은 하나님이지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요 14:27 / 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_____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리석은 자의 영원은 위험하다

어리석은 사람의 '영원'은 위험합니다.

눅 12:20~21 / 하나님은 이르시되 _____ 오늘 밤에 네
□□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_____
하셨으니 □□를 위하여 □□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눅 12:21)

주님의 책망을 받던 그날 밤 어리석은 부자의 재물들은 아무런 소
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밭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
한 열매를 거둬야 했습니다.

엡 5:11 / 너희는 _____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마 3:10 _____

※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눅 16:19~31)가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한 뒤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 핵심 메시지 _____

- 적용 _____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즐기는 자들은 나중에 영
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
이여! 슬프고, 슬프고, 슬픈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마 3:8

※ 고린도후서 6:2 말씀을 여러 번 함께 읽은 뒤 큰 소리로 암송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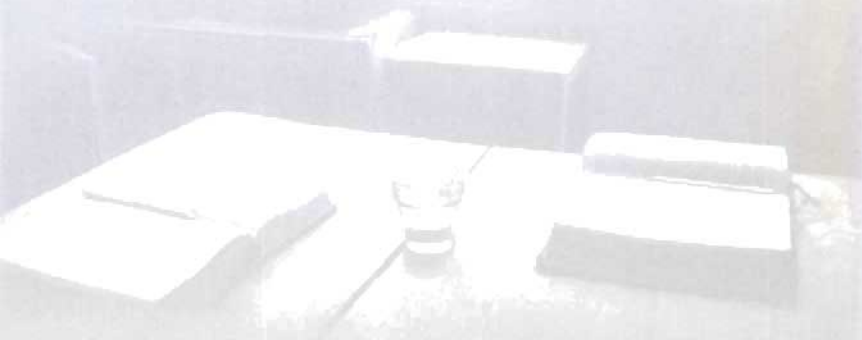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구원의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행 16:30~31).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주소서
2.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¹⁾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²⁾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³⁾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셀라)

(시편 46:1~3)

우리는 지금 매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 환경 재해, 정치적 혼돈, 사회적인 병폐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전 세계가 닥쳐올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은 그 문제로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쓰나미나 강도 10.0의 지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마귀가 우리를 목표로 삼고 공격해 올 때 사람이 아닌 타락한 천사들이나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현재 진행중이고 입증된 것이며 항상 준비되어 있고 믿을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위험한 순간에 피할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위험한 순간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몸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1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의 창조자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피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또 어떤 힘을 지녔든

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전하며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29~31은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 46:2~3).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확고히 붙든다면, 불안한 시대를 사는 동안 이보다 더한 것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달아나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나운 폭풍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배 안에 우뚝 서신 채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그러자 바람과 바다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에게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때 두려워할 것입니까? 파도가 치솟고 강풍이 휘몰아칠 때 그 때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1~3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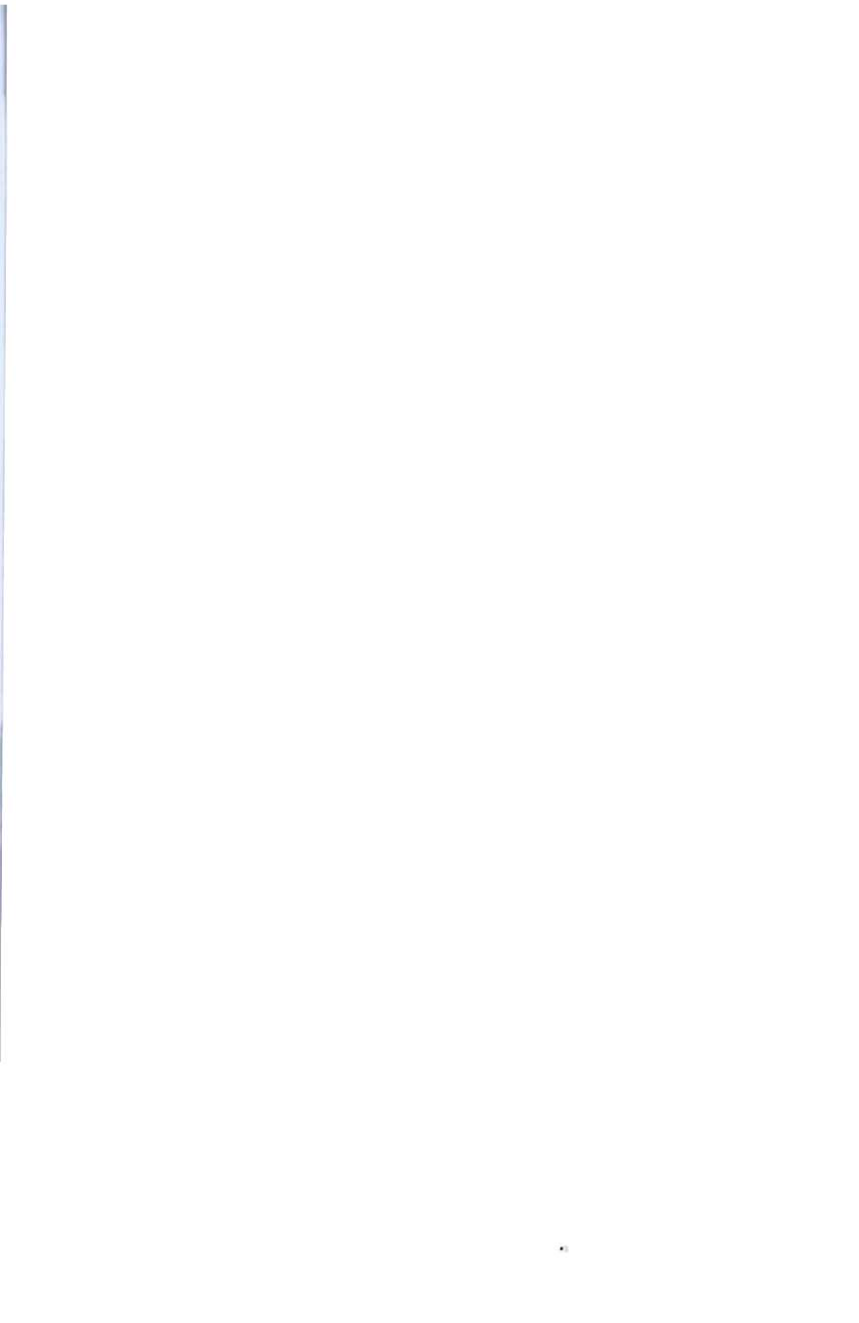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 46:10).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가 흔들릴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파괴자를 소멸하십니다. 그분은 무기들을 쓸모없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십니다. 로마서 8:28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로마서 8:14~15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 1:12).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평안과 약속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약속 안에서 변치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루를 마치십시오. 세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6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